

圖書館法은 왜 必要한가?

— 初·中等 教育을 中心으로 —

李 鍾 文

學校와 圖書館

教育이란 社會文化的 存續과 그 發展의 要求에서 生成한 社會機能의 一部라고 解釋함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이 社會의 要求를 어떻게 實現시키느냐에 따라 教育의 方法論이 成立된다. 過去는 一定한 社會生活의 樣式이나, 文化의 水準을 다음 世代에 傳達하는 手段으로서 教育이 存在했다고 할 수 있다. 學科目的의 注入式 教育이나, 既成 觀念을 토대로 한 成人의 行爲水準에의 強制等이 教育에 直接目的視되어 教科書와 教師만이 教育活動의 中心이었음은 지난날 우리가 받은 教育의 全部였다. 그러나 民主의 人間觀의 發達을 통하여 人間活動에 關한 思考와 行動이 分化 發展함에 따라 自尊과 協同을 基低로 人間形成의 過程에 變貌를 일으키게 되어 教育의 方法도 漸次 變化를 가져 왔다. 教育이란 社會文化的 存續 發展을 爲하여서만 直接적으로 要求되는 것이 아니라 學童의 成長에 必要한 하나 하나의 배움과 이를 累積시켜서 思考있는 行動의 成長變化를 通하여서만 到達되는 目的地라고 生覺하기에 이르렀다.

教育은 一方的으로 強制되는 것이 아니라 項前에서 成長해 가고 있는 學童을 正視하고 그들의 生活活動을 引導하며, 知的으로 均衡잡힌 教育을 도우며, 存在의

樣相成長의 過程을 따라 生活現實을 토대로 方法과 原理를 찾기에 이르렀다. 學童은 自身의 生活經驗을 통하여 成長하는 것이며, 배운다는 것은 經驗의 提供이며, 生活의 過程에서 直面하는 大小의 問題를 合理的 能率의으로 解釋할 수 있는 힘, 即 創造的이고 또한 反省의 思考의 能力이 經驗生活을 通하여 發展하는 것이라고 본다. John Dewey는 教育의 特徵을 「經驗의, 經驗에 依한, 經驗을 爲한 教育」이라고 말하였다.

教育이 學童의 生活經驗을 통하여 社會文化的 要求에 응하는 것이라면 教育機關으로서의 學校는 學童들이 效果의으로 生活經驗을 할 수 있는 곳(現場)이어야 할 것이다. 學校는 暗記와 試驗으로 學生에게 被動的인 學習을 要求하는 곳이 아니라 眞正한 뜻에서 生活中心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學校는 教育的으로 計劃된 小社會로서 生動하는 現實의 社會가 必要로 하는 內容을 具體的 計劃의으로 組織하여 靑少年들의 生活과 생활을 통하여 現代의 社會生活에 알맞는 諸能力을 生活과 連結하여 習得할 수 있도록 教育形態를 整備하여 가고 있다. 教科內容도 教科書만을 가르치는데 專念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에서 學童을 「어떻게 育成할 것이냐」 「무엇을 經驗시킬 것이냐」에로 바꾸어 生活活動의 Program으로 代替되고

있다. 過去의 教授法은 學科內容을 傳達하는 技術에 執着해 있었다. 그러나 學童의 自發的인 形形色色的 學習活動을 營爲하는 것을 알게 된 오늘날은 學童自身이 活動의 對象을 自身の 努力으로 觀察理解하는 學習態度를 가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問題解決의 過程에 있어서 教師란 有效하게 結果를 맺도록 하는 鍵잡이인 것이다. 배움의 意慾을 자극하고 動機를 提供해 주며 條件을 整理해 주고 學習의 過程을 示唆하고 學習過程을 活潑有效하게 促進하는데 教師의 任務가 있음은 現代教育의 特徵인 것이다. 教科書 一冊만이 學習資料이던 時代는 지나 갔다.

學校教育은 커리큘럼에서 始作된다고 한다. 커리큘럼의 內容은 어린이들의 多様な 生活活動의 광장으로서는 學校教育의 內容이 되도록 한다. 學童을 價値있는 文化環境으로 善導하기 위하여 짜지는 커리큘럼의 構成과 展望 그리고 그 補充을 爲하여 現代教育은 學習資料와 經驗資料가 要求되며 그러기 위하여 教室以外에 別途의 施設이 學校에 必要함은 極히 論理的인 常識인 것이다. 學童들의 經驗이란 直接的으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環境의 媒介에 의한 間接的인 要素 即 環境의 整備에도 依存하는 바 크다. 그렇기 때문에 教育活動의 要求에 相當한 學校設備中에서 가장 代表的인 것이 學校圖書館이다. 學校圖書館은 學習資料의 資源인 同時, 學童들의 經驗을 社會文化의 要求에 向하여 넓고 깊게 補填하는 機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學校圖書館의 機能

前述한 바는 새로운 學校教育의 本然의 姿勢를 考察하여 計劃된 教育의 完成을 爲한 基礎的施設로서의 學校圖書館의 必要性을 지적했다. 그러나 理念的으로는 首肯이 되면서도 現實的으로는 現代教育의 原理가 無視 내지 忘却된채 韓國의 學校教育은 空轉을 되풀이 하고 있는 實情이다. 우선 學校圖書館의 機能은 무엇인가? M. P. Douglas는 學校圖書館의 機能을, 첫째로 奉仕機關임을 強調하여 “學校內에서 實施되고 있는 全般的인 教科 및 學生, 教師들의 興味와 關心의 資料를 提供하는 奉仕施設”이라고 記述하고 있다. L.F. Fargo는 그의 著書에서 다음과 같이 具體的으로 列舉하였다.

1. 教育課程의 要求와 學童의 必要에 依하여 圖書 其他의 資料를 蒐集하여 이들 자료를 效果的으로 利用할 수 있도록 組織한다.
2. 學童이 個人的으로 或은 學校課業에 要望되는 圖書 또는 其他의 資料가 必要에 의하여 선택되도록 學童들을 指導 案内한다.
3. 圖書 및 圖書館의 利用能力과 技術을 發達시켜 自發的 自律的인 研究調查의 習慣을 기르도록 한다.
4. 學童에게 必要한 價値있고 多様な 興味를 開發시킨다.
5. 美的인 經驗을 附與하여 藝術의 鑑賞力을 發達시킨다.
6. 圖書館資料의 利用을 通하여 平生동안 自己教育(Life-long self education)을 繼續할 수 있는 基本的 態度를 形成시킨다.
7. 學童의 社會的 態度를 助長시키며, 社會的 民主的 生活의 經驗을 附與한다.

8. 學校의 敎職員及 管理者와 協助的, 建設的으로 協同한다.

以上 八個項目的 內容은

① 整備된 圖書館資料 ② 讀書指導
③ 利用을 통한 圖書館教育 ④ 運營의 機能化를 強調하고 있으며, 學校圖書館은 學校의 基礎的 施設이며 奉仕機關으로서 教育機關으로서의 兩大 機能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前者는 教育活動의 支柱가 되는 資料의 供給源으로서의 活動과 後者는 圖書館自體가 直接的인 教育의 現場으로서 提供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諸目的을 實現하기 爲하여 存立되는 圖書館의 構成은 圖書(圖書以外 資料包含), 司書職 그리고 場所의 세 가지 要素이며, 學校에 있어서 圖書館擔當 司書敎師는 圖書館의 把守兵이 아니라 圖書館運營을 통하여 奉仕와 教育을 實施하는 專門家인 것이다.

韓國의 學校와 圖書館 實情

우리나라에는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 6,397個校가 있다. 그중 學生과 敎師에게 利用되도록 均衡있게 蒐集된 藏書 500卷以上을 收藏하는 圖書館數는 初·中·高校 합쳐서 149個校(1962年現在)에 不過하다. 全體學校數에 比해 約0.4%라는 數字는 韓國의 教育은 아직도 敎師中心의 敎科書(各科別 한 卷)의 傳達이라는 前近代의 方法에 依存하고 있음을 證明한다. 藏書數를 美國과 對照하기는 우리의 形便으로 困難한 바 있지만 日本의 國民學校가 學生當 1.5冊, 中學校 2.3冊, 高校 6.2冊과 比較한다면, 韓國의 初·中等教育의 質을 가히 測定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에도 學校施設基準令이 있고 同施設基準의 一部로서 圖書館에 關한 基

準이 있음은 既知된 바 있다. 1963年 新學期를 期하여 同基準의 改正이 方今 推進되고 있다 한다. 同案의 藏書基準을 보면 下記表과 같다.

이 表의 圖書, 雜誌, 新聞의 數는 學生을 爲한 것이며, 敎師用은 別途로 必要하리라고 본다. 特히 冊數는 系統없이 거두어 들인 雜書群이 아니고 圖書館機能에 맞는 選擇된 良書들을 말하는 것이어야 할은 물론이다. 過去에도 規準이 없는바 아니나 이것이 實施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再調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專門教育을 받은 司書敎師를 配置하지 않고 規準만을 要求한다면 어찌 教育目的에 맞는 機能과 奉仕를 期待할 수 있겠는가? 圖書館은 專門職과 選擇된 圖書 그리고 施設이 있어야 비로소 機能을 發揮할 수 있으니, 特히 圖書館教育을 받지 않은 圖書館運營이란 마치 「漁夫에게 艦船의 建造를 바라는 것」과 같을 것이다.

圖書館人和 國內各級圖書館의 聯合體인 社團法人 韓國圖書館協會가 圖書館法의 必要性을 力說하며 이의 制定을 促求한 것은 1955年 4月 16日 本協會의 創立總會에서였다. 그後 6,7次에 걸쳐 法案이 作成되어 文教部 혹은 國會에 提出된 바 있으며, 革命後는 文教部에서 法制處 次官會議까지 上程되었다가 「現在の 國家財政으로는 困難하다」는 理由로 去年 7月末 無期限 保留(事實上 棄却)되었다. 그러던 圖書館法의 制定을 渴望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圖書館法은 公共圖書館과 學校圖書館의 兩分野로 大別할 수 있다. 그중 學校圖書館分野에서는 學校教育의 中心이라는 圖書館을 學校에 設置하고 教育받은 專門職 司書敎師를 配置하여 理念으로서

品目	規格 規模	學校別		國民校		中學校		高等學校		摘要
		數量		規格	數量	規格	數量	規格	數量	
		規格	數量							
圖 書	1人~200人	冊	200	冊	300	冊	500	冊	800	
	201人~1000人	"	800	"	1,500	"	2,100	"	3,200	
	1001人~2000人				3,000	"	4,100	"	6,200	
	2001人~3000人				4,500	"	6,100	"	8,200	
	3000人以上				4,500	"	6,100	"	8,200	
雜 誌	1人~200人				2	種	6	種	7	
	201人~1000人				3	"	8	"	9	
	1001人~2000人				4	"	10	"	12	
	2001~3000人				5	"	12	"	15	
	3001人以上				5	"	12	"	15	
新 聞	1人~200人				3	"	4	"	4	
	200人~1000人				4	"	6	"	6	
	1001人~2000人				5	"	8	"	9	
	2001人~3000人				6	"	10	"	12	
	3000人以上				6	"	10	"	22	

是認되어 오던 새로운 學校教育을 實質的으로 發展할 수 있는 基礎를 마련하자는 데에 圖書館法의 制定을 促求하는 眞意圖가 있는 것이다.

圖書館法의 制定이 圖書館人들을 爲한

것이 아님은 勿論이다. 圖書館法이 없는 限韓國教育은 그 實을 거둘 수 없다고 함은 妄言일까. 한번 생각해 볼 問題이다.

(韓國圖書館協會 事務局長)

(轉載)